

# 진격의 광주FC '이번엔 대전이다'

### 내일 '승격 동기' 대전 원정戰 거침없는 상승세, 4연승 도전



프로축구 광주FC가 대전 원정에서 리그 4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0일 오후 8시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18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그야말로 폭풍 질주다.

지난 라운드 수원삼성을 홈으로 불러들인 광주는 선제 실점과 상대의 질식 수비에도 불구하고, 토마스의 멀티골에 힘입어 2-1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냈다.

최근 FA컵 포함 5경기 무패행진(4승 1무)에 리그에서만 3연승을 기록한 광주의 다음 상대는 승격 동기 대전이다.

광주는 대전 원정에서 승리로 연승 행진을 잇고 끝맛같은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다.

끝까지 매서운 공격을 퍼부은 광주.

지난 라운드 최고의 선수는 브라질필리셔 토마스였다. 후반 8분 교체 투입된 토마스는 화려한 드리블과 날카로운 키패스로 공격에 큰 힘을 불어넣었다. 후반 23분과 후반 45분,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아사노와 이희곤 등 2선 공격진 또한 활발한 움직임과 키패스로 팀 승리에 기여했으며 두현석과 김한길의 적극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주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이번 상대 대전은 7승 4무 6패로 5위에 올라있다.



광주FC 토마스가 지난 7일 열린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토마스는 이날 0-1로 뒤진 후반 23분 자신의 K리그1 데뷔골이자 팀의 동점골, 후반 45분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의 주역이었다. <광주FC 제공>

주세종과 이현식, 이진현, 공민현 등 출중한 실력의 선수들이 준비하며 레안드로, 티아고, 안톤, 마사 등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또한 무섭다.

상대전적 또한 9승 9무 10패로 광주가 열세.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선 2승 3무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을 확정지킨 후

에 떠난 대전 원정에서 불굴의 의지로 후반 추가시간 이상기의 특점에 힘입어 무승부를 거두는 등 저력을 보여줬다.

광주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적극적인 돌파와 연계플레이로 상대 골문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광주가 대전을 꺾고 4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유해란이 지난달 15일 열린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마지막 날 17번 홀에서 티샷을 때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DB

## '신인왕 1순위' 유해란 LPGA 투어 첫 우승 쏘나

### 오늘 슐라이트 클래식 출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상 부문 1위 유해란이 9일 개막하는 슐라이트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에서 첫 우승에 도전한다.

3라운드 54홀 대회인 슐라이트 클래식은 9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시뷰 베이코스(파기·6천190야드)에서 열린다.

유해란은 이번 시즌 신인상 포인트 351점을 얻어 210점의 그레이스 김(호주), 168점의 나타끄리타 원타워랍(태국)에 앞서 1위를 달리고 있다.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신인상을 휩쓸었고, 최근 2년 사이에는 2021년 패티 타와타나짓, 지난해 아타야 티피꾼 등 태국 선수들이 신인왕으로 등극했다.

올해 그레이스 김이 우승, 원타워랍

은 준우승이 한 번씩 있는 반면 유해란은 최고 성적인 3위 한 차례지만 더 꾸준한 성적을 올려 신인상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중이다.

특히 최근 4개 대회에서 세 번 '톱10'에 진입했고, 5일 끝난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에서 단독 3위에 오르는 등 최근 흐름이 좋다.

여기에 우승까지 더하면 아직 시즌 중반이지만 신인상 경쟁에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슐라이트 클래식은 1999년 박세리, 2006년 이선화, 2017년 김인경 등 한국 선수가 세 차례 우승한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유해란 외에 김효주, 김세영, 이정은, 박성현, 김인경 등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들과 우승 경쟁을 벌일 선수로는 지난해 우승자 브룩 헨더슨(캐나다)을 비롯해 티피꾼, 조지아 홀(잉글랜드) 등이 있다. /연합뉴스

## 테스형 '홈런 치고 'The 2024 Niro' 받고'



### KIA 소크라테스, 2023 '기아 홈런존' 첫 주인공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가 2023시즌 기아 홈런존의 첫 주인공이 됐다.

소크라테스는 지난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3회 말 무사 2, 3루에서 상대 투수 백승건의 공을 받아쳐 '기아 홈런존'을 직접 때리는 홈런포를 터트렸다.

KIA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개장 첫 해(2014년)부터 우측 잔디석에 '기아 홈런존'을 운영하고 있다. 바운드 없이 홈런존 차량 및 구조물을 맞히는 선수에게 전시 차량을 증정한다.

소크라테스의 타구가 기아 홈런존에 전시 중인 'The 2024 Niro' 차량 구조물에 맞음에 따라, 기아는 동일 모델의 차량(3천500만원 상당)을 소크라테스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기아 홈런존으로 타구를 날려 차량을 받은 선수는 김재환(2014년 5월 27일 K5), 최희섭(2015년 4월 9일 올 뉴 쏘렌토), 오재일(2017년 10월 25일 스텝어), 프레스턴 터커(2020년 5월 17일 쏘렌토), 김현수(2020년 8월 4일 쏘렌토), 나성범(2021년 9월 12일 K5, 2022년 8월 16일 더 뉴 셀토스)이다.

/박희중 기자



소크라테스가 3회 말 기아 홈런존을 직격하는 홈런을 쳐낸 후 베이스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해 열린 제11회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경기 모습.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열린

제12회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볼링 대회가 9일 볼리스 볼링장(동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광주시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대회는 전맹 등급인 TPBI와 약시 등급인 TPB2, TPB3 경기가 남녀 통합으로 진행된다.

TPBI 선수는 반드시 아이패치와 안대를 착용해야 하며, 이동식 가이드 레일을 잡고 경기를 진행한다.

TPB2와 TPB3은 일반 볼링 경기 운영 방식을 따른다. 세부경기로 3인조 및 등급별 개인전이 실시되며, 입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광주는 7명의 선수가 TPBI-3 경기에 참가하며 양정근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성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빛고를 광주에서 시각 볼링을 매개로 전국의 선수들과 함께 해 기쁘다"며 "대회를 통해 시각 볼링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메시의 선택은 MLS 인터 마이애미

### BBC '애플·아디다스와 계약·라이프스타일 등 '축구 외적 이유'로 선택'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둘러싼 '세기의 영입전'의 최종 승자가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의 인터 마이애미로 확정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7일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의 제안을 거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 역시 메시와 MLS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마이애미 합류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한 소식통은 오는 7월 21일 인터 마이애미와 크루스 아술의 리그컵 홈 경기를 메시의 데뷔전으로 점쳐올 정도로 구체적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두 매체 모두 MLS를 후원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 두 곳의 지원이 메시의 마이애미행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본다.

애플이 출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TV+가 올 시즌부터 10년간 MLS 중계를 책임지는데, '시즌 패스(한 시즌 중계 패키지 이용권) 수익의 일부를 메시에게 제공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디애슬레틱은 전했다.

또 다른 후원사 아디다스 역시 MLS를 통해 나온 수익을 공유하는 안을 따져봤다고 한다.

이런 조건을 수용했다면 연봉, 광고 수익 등 기존 스타 선수가 받은 금전적 대우에 더해 사실상 리그 중계 수익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챙기게 된 셈이다.

실제로 BBC는 "대형 브랜드와 계약, 라이프스타일 등 축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메시가 마이애미가 끌리게 됐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 '스마일 점퍼' 이상혁, '월드랭킹 1위' 탈환

'스마일 점퍼' 이상혁(27·용인시청) 3개월 만에 '월드랭킹 1위'를 탈환했다.

세계육상연맹은 8일 홈페이지에 각 종목 월드랭킹을 업데이트했다.

8일까지 치른 경기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남자 높이뛰기 월드랭킹에서 이상혁은 3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7월 26일 월드랭킹 1위로 올라선 이상혁은 올해 초 실내 시즌에 단

한 번만 출전한 탓에 평균 점수가 떨어져 3월 21일에 3위로 밀렸다.

그러나 5월 6일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2위(2m27),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한 5월 9일 예전 KBS배 우승(2m32), 5월 21일 요코하마 골든그랑프리 우승(2m29), 로마-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 2위(2m30)에 오르며 다시 랭킹 포인트를 끌어올려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연합뉴스